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어느새 올 한해가 끝나갑니다. 해가 바뀌기는 하지만 시간 단위는 사실 편의상 나눈 것일 뿐, 시간은 연속되는 흐름이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가 보다는 어디로 가는가가 더 중요하다. 말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우리는 늘 시간을 뒤로 되돌리려 한다. 앞으로 나가는 시간 대신에 지난 시간의 형식과 내용으로 현재를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이 텅 빈 때, 할 수 있는 일은 갈피를 잃어버리고 미망에 빠지는 것뿐이다. 미망은 한번 빠져들면 쉽게 깨어나기는 어렵지만 증폭되기는 쉽다. 미망은 흔히 '모른다', '알고 싶지 않다',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만들어 내는 방향과 판단을 잃은 혼란이다. 이 미망의 겨울잠에서 깨어날 열정도 의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겨울 동화 속 삶이다.

어느 겨울 동화와 미망의 겨울잠에서 깨어나

망명해서 살던 하이네는 13년 만에 독일을 여행한다. 마침내 하이네는 국경에 도착하지만, 눈앞의 독일 모습에 크게 실망한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실현된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여전히 과거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세관원은 불온서적을 찾기 위해서 하이네의 집을 검색하고, 어디선가 들리는 노래는 열정도 기쁨도 없는 '체념의 노래' 뿐이다.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여전히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이미 끝난 봉건시대에 머물러 있는 독일을 하이네는 깊은 겨울잠에 빠진 상태로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하이네의 겨울 동화는 잠을 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너무 깊은 잠을 깨우기 위한 날카롭고 냉정한 동화다.

마음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살펴주지 않는가! 이를 두고 하이네는 겨울 동화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이네는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그때는 아주 위험한 시기였고, 그래서 침묵은 절반의 배신이었습니."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회갑 잔치였다. 시골 마을 죽마고우끼리 회갑을 자축했다. 물론 각자 가족과 축하연을 열었지만, 우리끼리만의 자축연은 더 즐거웠다.

로또 같은 행복

에서 말하는 구부득고(求不得苦)에 시달렸고, 여태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지 모른다.

기고



안철
클래식 애호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지난 30년간 음악 감상 강의에 초청받았을 때 처음 만나는 음악 애호가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다. 그러면 대개 "좋아합니다만 어렵습니다." "말이 틀어본 음악인데 곡 이름을 알 수 없어요." "클래식 음악은 웬지 어렵고 거리감을 느껴요."란 대답을 많이 듣는다. 여러 소스로부터 쉽게 접하는 대중음악에 비해 고전음악은 아무래도 쉽게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음악을 접하는 기회가 많고 적음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보통 대중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애창곡을 수십 번씩 듣는다. 만약 고전음악도 어떤 곡을 수십 번을 들으면 속속들이 알고 좋아하지 않을까?

클래식을 권합니다

즐기는 것은 문턱이 높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친해지도록 하십시오." 공자가 '논어'의 '옹야' 편에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다. 음악을 접할 때도 이론적으로 알리고 처음부터 노력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 보다는 우선 목소리나 악기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기면 나도 모르게 차츰 음악을 더 좋아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볼 수 있겠다. "좋아하고 즐기면 들리고 보인다. 들리고 보이면 깊이가 더해져서, 더 좋아하고 더 즐겨서 알게 된다."라고

중에 아주 드문드문, 그게 금이어서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중에 드문드문 생겼던 즐거움과 행복이 바로 황금이었다.

社說

'서울의 봄'이 광주시민들에게 남다른 이유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서울의 봄'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은 개봉 4일째 100만 명을 동원한 데 이어 개봉 12일을 맞은 3일 4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는 중이다. 광주에서도 지난 2일(까지) 94개 스크린에서 누적 관객수 14만 5200명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극장가는 이런 흥행 추세를 따라 전만 영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영화를 통해 새롭게 조명된 인물도 있다. 육군본부 B-2병거를 지키다 사망한 조민병 병장의 모티브가 된 광주 출신 고(故) 정선업 병장이다. 국방부 제50헌병중대 소속이었던 그는 무력 진압에 나선 반란군에 끝까지 저항하다 목숨을 잃었지만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해에야 전사자로 결정됐다.

'COP33' 유치로 남해안 남중권 도약 꾀해야

전남도가 2028년 개최되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해 'COP33' 유치를 선언했다.

하는데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갈수록 위상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가 5년후 개최를 공약화 한것은 바다와 연안이 많은 남해안 남중권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에 최적이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1일 두바이 현지에서 국제포럼을 열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최적이라는 유치 명분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유치 후 전략적 접근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無等鼓 (No Equal Drum)
최근 근산 선유도 해역에서 삼국시대 토기, 후백제 시대 기와, 고려청자 등 유물 180여 점이 발굴됐다. 유물들은 고대 주요 항로였던 선유도 해역에서 침몰한 고선박에 실렸던 화물로 추정된다.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유물은 갈날 조각만 발굴된 간돌검이었다. 국내 수중 발굴 사상 처음으로 견제울린 간돌검은 돌을 갈아 만든 칼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선사시대부터 선유도가 해상활동의 거점이었음을 밝혀주는 증거"로 해석했다. 선유도 간돌검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바닷가 선사인들의 주거지가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에 잠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고(古)기후 연구자인 박정재 서울대 교수는 논문(한반도의 홀로세 기후변화와 선사시대 사회변동)에서 "2800년 전 ~2700년 전 한반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는 견해를 냈다. 광양시 진원면 섬진강 범람원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퇴적된 전채 꽃가루 중 나무 꽃가루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 게 증거다. 꽃가루 감소는 수도작 농경으로 번성하던 송국리 문화가 현저히 저취를 감춘 이유를 설명해준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송국리 문화는 금강 중·하류 지역에서 3000년 전 등장한 뒤 2300년 전에 사라졌다. 가뭄으로 삶의 기반인 벼농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송국리인들은 벼농사에 적합한 곳을 찾아 남하했다. 2700년 전 ~2400년 전에 전라도와 경상도 서부지역에 송국리형 문화가 등장한 배경이다. 송국리인 가운데 일부는 바다 건너 온난습윤한 일본 규슈 등지로 건너가 야요이 시대(彌生時代)를 열었다. 이들은 농경 생산성을 기반으로 일본에 뿌리내렸고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조몬인(縄文人)을 북쪽으로 밀어내거나 동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는 말을 실감케 하는 이변들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 전남 지역도 지난 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주요 상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 저수율이 바닥으로 떨어져 제한 급수 위기를 맞았다.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예측하며 대처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역사의 교훈이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circulation.